



행사문의	이민호 국제협력센터장 ☎ 02-3156-7062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보도시기	2026년 9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 매수 : 총 6쪽(본문 5쪽, 붙임 1쪽 포함)	

OECD 가입 30년, AI 시대 새로운 성평등 과제를 논의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성평등 포럼 개최

AI가 바꾸는 일자리, 성별 AI 활용 격차와 성평등한 노동시장 전환 과제 논의
딥페이크·이미지 기반 성폭력 등 AI·디지털 시대 여성의 안전과 권리 대응 모색
OECD·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OECD·G20/W20 등 다자무대에서 논의할 차세대 성평등 협력
의제 발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대사 백태웅)와 공동으로 10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OECD 가입 30주년, 성평등의 새로운 과제: 노동시장의 AI 전환과 디지털 안전”을 주제로 「대한민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성평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양성평등 국제협력 전략 연구」를 통해 OECD와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
 - 포럼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여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새로운 성평등 정책과제와 국제협력 의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 김종숙 원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평등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개최된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의 주요 의제였던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Harness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All)’을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 “이번 포럼을 통해 OECD 등 국제사회와 AI 시대의 성평등 정책과 디지털 안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한국의 연구와 정책 경험이 국제사회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태웅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AI와 기술혁신이 유례없는 산업 재편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AI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함께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2인의 전문가 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안나 밀라네즈(Anna Milanez) OECD 고용노동사회국 이코노미스트가 “직장 내 여성의 AI 활용: 새로운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브리짓 해리스(Bridget Harris) 호주 모나시대학교 부교수와 조혜인 호주 모나시대학교 조교수가 “경계를 넘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술매개 폭력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 안나 밀라네즈 박사는 OECD의 최신 분석과 기업 사례를 토대로 AI가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격차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OECD 분석에 따르면,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이 평균적으로 AI에 특별히 더 많이 또는 덜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직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역량이 중요한 교육·간호 직종은 AI가 관련 역량을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 문서처리와 시각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사무·행정 직종은 상대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사례연구에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기술직·관리직에 고급 AI 도구가 우선 제공되거나, 여성 비중이 높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AI를 학습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AI 도구에 대한 균등한 접근과 별도의 학습시간을 보장한 기업에서는 성별 AI 사용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 AI 도구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학습시간 보장 ▲ AI 리터러시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 보완적 역량 강화 ▲ 직무와 업무방식 재설계 ▲ 포용적인 AI 설계 ▲ 성별 AI 활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기업과 정책당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호주 모나시대학의 브리짓 해리스·조혜인 교수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과 감시, 딥페이크·합성미디어, 이미지 기반 성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AI 기술과 결합해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을 살펴보았다.

- 발표에서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여성과 여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심리적·사회적·직업적 영역과 안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합성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딥페이크뿐 아니라 조작된 음성·영상과 허위 증거 등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확대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 ▲ 기술 개발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안전 중심 설계’ ▲ 폭력 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 교육과 인식 제고 ▲ 주변인의 적극적 개입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이후: 성평등한 AI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종합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안나 밀라네즈 OECD 이코노미스트, 조헤인·브리짓 해리스 교수, 이아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대외협력팀장, 최승훈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 참석자들은 AI·노동시장 전환과 성평등 정책, 기술매개 젠더 기반폭력과 디지털 안전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OECD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협력 의제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OECD 및 해외 전문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처, 유관 연구기관 및 학계·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 행사명 : 대한민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성평등 포럼
- ☐ 주제 : OECD 가입 30주년, 성평등의 새로운 과제: 노동시장의 AI 전환과 디지털 안전
- ☐ 일시 : 2026. 10. 1.(목) 14:00~16:50
-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 참석자 : OECD 및 해외 전문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처, 유관 연구기관, 학계·정책 전문가 등
- ☐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4:00~14:20	개회식	사회 : 이민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개회사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환영사 : 백태웅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축사 :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 그룹 사진 촬영
14:20~14:45	발표	직장 내 여성의 AI 활용: 새로운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안나 밀라네즈(Anna Milanez) (OECD 고용노동사회국 노동경제학 이코노미스트·경제학 박사) 경계를 넘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술매개 폭력과 대응 브리짓 해리스(Bridget Harris) (호주 모나시대학 부교수) 조혜인 (호주 모나시대학 조교수)
15:10~15:20	휴식	
15:20~16:40	종합 라운드 테이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이후: 성평등한 AI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과제 좌장 :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나 밀라네즈(Anna Milanez) (OECD 고용노동사회국 노동경제학 이코노미스트·경제학 박사) 브리짓 해리스(Bridget Harris) (호주 모나시대학 부교수) 조혜인 (호주 모나시대학 조교수) 이아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대외협력팀장) 최승훈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16:50	종합정리 및 폐회	